

		<b>보도설명자료</b>		
		배포일시	2021. 4. 26.(월) 총 1매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담당자	과장 이상헌, 사무관 최승필, 주무관 이명신 ☎ (044) 201-3874, 3883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가능		

## 고속도로 휴게소에 현대차그룹이 설치한 충전시설은 최대 350kW급으로, 전기차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

### < 관련 보도내용 >

- ◆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100개?... 숫자 부풀리고 왜곡하는 정부(한겨레, 4.26)
  - 현대차그룹이 설치한 충전기 72기 중 실제 350kW급 충전기는 48기에 그쳐

- 고속도로 휴게소에 현대차그룹과 협업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 (12개소, 각 6기씩 72기)은 모두 최대 350kW급 용량으로 제작·설치 되었습니다.
  - 다만, 동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 주체인 현대차그룹은 초급속 충전 가능 차량의 보급 상황과 운영 효율화 등을 고려해 현재 48기만 (개소당 6기 중 4기) 350kW급으로 운영중입니다.
  - 향후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차종의 보급 상황에 맞춰, 현대차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충전기를 350kW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.



이 보도설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최승필 사무관(☎ 044-201-38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